**마0713 Note**

**◆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변승우 목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6개월간 계실 때 친히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넓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길은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 사이에 난 길입니다.

시편 25:10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조화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가 균형을 이루어 그 사이로 난 길입니다.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8:21-29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여기 “주의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설명할 때 먼저 인자하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21-22)

그 후에 하나님의 엄위하심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24)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시 85:10)라는 말씀처럼 진실로 주의 길은 인자와 엄위 사이로 난 길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요 14:6)고 말씀하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증거해줍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좁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17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길 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길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 사이로 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저는 수년 전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작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 사이로 난 생명의 좁은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은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의 우측으로 치우칩니다. 즉 인자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서 벗어나 불법이라는 도랑에 빠집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의 좌측으로 치우칩니다. 즉 엄위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서 벗어나 율법이라는 도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경고한 것입니다.

로마서 11:21-22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울은 여기서 좁은 길의 우측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랑타령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흐름은 영혼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길을 걸을 때 좌나 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을 벗어나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은 경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5:32-33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호수아 1:7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행하려고 할 때 절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1) 좌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길 옆에는 도랑이 있습니다. 좁은 길 양 옆에도 도랑이 있습니다. 이중 왼쪽 도랑은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치우칠 때, 즉 하나님의 엄위 쪽으로 치우칠 때 빠지게 되는 도랑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의 왼쪽 도랑에 빠지면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으실 거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위 쪽으로 치우쳤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만 용서하시고 큰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전에 그가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살인했고, 나는 간음했고, 나는 도적질을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러나 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바울이 “죄인 중의 괴수” 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앞의 “죄인”이라는 단어는 살인자, 간음자, 강도 등 모든 유형의 범죄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유형의 죄인들을 떠올리며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죄가 결코 바울의 죄보다 크지 않습니다.

바울은 열성적인 박해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인 로마의 독재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일제 순사들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최악의 사람이요, 가장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죄는 다른 죄들보다 더 큽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감을 주는 죄는 간음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간음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살인죄가 더 큽니까?

물론 살인이지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죄가 더 큽니까? 내 자녀들을 죽인 죄가 더 큽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의 죄가 더 큽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죄인 중의 대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어떤 죄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좁은 길의 왼쪽 도랑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사람들이 ‘큰 죄’ 다음으로 고민하는 것은 ‘많은 죄’입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역시 왼쪽 도랑에 빠진 결과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예수님은 행하며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1-2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는 분입니다. 날마다 마을 입구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3)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에스겔 18:21-23, 27-28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지었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는 것이 공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평은 사랑에서 나온 공평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일단 사형을 언도받으면 사람이 돌이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에 대하여 “가장 악할 때 사형선고를 받고 가장 선할 때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언제든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장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를 심판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4)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용서하셨지만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아. 나는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났고 크게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도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 큰 꿈을 꾸거나 이룰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다릅니다.

시편 103: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38:17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미가 7:18-19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히브리서 8: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자신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회개한 죄들을 보지 못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하시고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악감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13-14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잊으신 것을 왜 그토록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처럼 여러분도 잊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낙인을 찍지 않으십니다. 낙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나 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회개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과거의 죄로 사람을 이류와 삼류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따돌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릭 조이너의 “추수”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낮은 계급으로 보였던 이들 중 얼마는 하나님의 최고위 장성들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상당수를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이지만 하늘나라와 음부, 전 영계의 군대에게 그들은 창세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들 중 얼마는 깨어나기 전에 인간의 죄, 상처와 절망의 바닥을 기던 생활을 했을 것이다. 많이 사함을 받고 또 많은 것에서 해방을 받았기에 그들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원수가 그들 속에 깊이 파고든 만치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 그들 속 깊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생명나무의 빛으로 빛나며 모든 나라들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같은 책에서 릭 조이너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날에 가장 큰 생명을 교회에 가져올 사역자 중 얼마는 지난날 큰 과오를 저지른 이들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낭패하여 모든 인간의 노력과 힘의 막바지에 다다른 후에야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은 성서 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일들이다. 높임을 받기 전 겸손이 오는 것이다... 극심한 영적 실패를 체험한 사람 중에 많은 수가 그 실패 때문에 주님께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실패로 인한 겸손함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더 많은 영적 권세를 주시도록 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는 3류 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 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좁은 길에는 왼쪽 도랑뿐 아니라 오른쪽 도랑이 있습니다. 한 쪽에만 도랑이 있다면 좁은 길이 아니겠지요. 좁은 길의 오른쪽 도랑은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 즉 하나님의 인자에 치우칠 때 빠지게 됩니다. 현재 교회 안에는 왼쪽 도랑보다 오른쪽 도랑에 빠진 사람이 7배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옥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 도랑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른쪽 도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 4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주를 시험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9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의미를 희석시켜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히브리서 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목사들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잠언 14:9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27-30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현대 교회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날로 노출이 심한 옷들이 유행하고, 영화들이 선정적이다 못해 포르노화 되어가고,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는 설교자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심각한 미혹입니다.

2) 오직 믿음을 맹신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지요? 하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대답합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뿐 아니라 회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막 1:15, 행 20:21, 히 6:1).

토마스 왓슨은 청교도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이며, 웨스트민스터회의에서 소요리문답을 작성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회개”라는 책 첫머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한 날개를 가지고 새가 공중을 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나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겔 18:30-32, 마 3:7-10, 벧후 3:8-9).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을 맹신하고 회개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만 아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12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3)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점검을 등한히 합니다.

우리는 설교자들이 “여러분 중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다음 두 가지 성구가 생각납니다.

예레미아 6:12-15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14-15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설교를 듣지만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실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강 대강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침 받아야 할 상처는 죄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에도 드러나지만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5:31-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는 병이고 회개가 진정한 치료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외형적으로는 대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람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회개에 관심이 없고 회개 없는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생각나는 또 하나의 성경구절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8:4-12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4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4-7절로 ‘현 상황’을 보여줍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집을 나갔으면 돌아옵니다. 철새들도 때가 되면 다시 날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치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두려움 없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8-10절로 이렇게 된 ‘원인’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고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독서를 많이 하고 강해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책도 쓰지만 “참으로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라는 말씀대로 많은 설교와 책들이 사람을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주원인은 다수의 목회자들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교리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을 빈번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11절로 그 결과 교회에 만연하게 된 ‘미혹’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구원의 확신의 교리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해준 뒤 이것을 믿느냐? 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보라고 합니다. 그 뒤 로마서 10장 9-10절을 읽어주고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토저 박사는 이런 가르침을 강하게 성토했고, 로이드 존즈는 산데만주의를 상기시키며 이것은 이단사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여러 번 지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복음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행 5:31)로 영접하는 것입니다(요 1:12). 단지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 부분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12절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강퍅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보다 더 나쁜 것이 뻔뻔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거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끄러워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4)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으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만 알고 엄위를 알지 못할 때 오는 가장 대표적인 미혹은 구원 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는 미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울은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만 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넘어지고 멸망할 수 있는 위험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만 보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는가? 그런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24-26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은 구약 아닙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견인의 교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에서 버림받고 엎드러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와 거울로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버림받을 수 있고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거울과 경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버림받을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1:20-22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21)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새 언약 아래 있는 신자들이 옛 언약 아래 있는 유대인들보다 결코 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 가지인 유대인들이 꺾일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꺾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의인이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 사이로 난 구원의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6: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리고, 이 길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입니다.

예레미야 6:1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와 왕들이 다스리는 때에는 걸핏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 아닙니까?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조상들인 청교도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성경말씀의 기초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게 수탈당하고 김일성이 일으킨 6.25로 전국토가 폐허가 되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덕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지금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타락했고 교회의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변질되었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교회들이 타락하고, 국민들은 이기적이고, 나라는 통일만 안 되었지 이미 적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다시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